

‘꿈을 현실로’ 성영탁 “내년은 또 새로운 시작”

데뷔 첫해 ERA 1.55...루키가남긴 묵직한 성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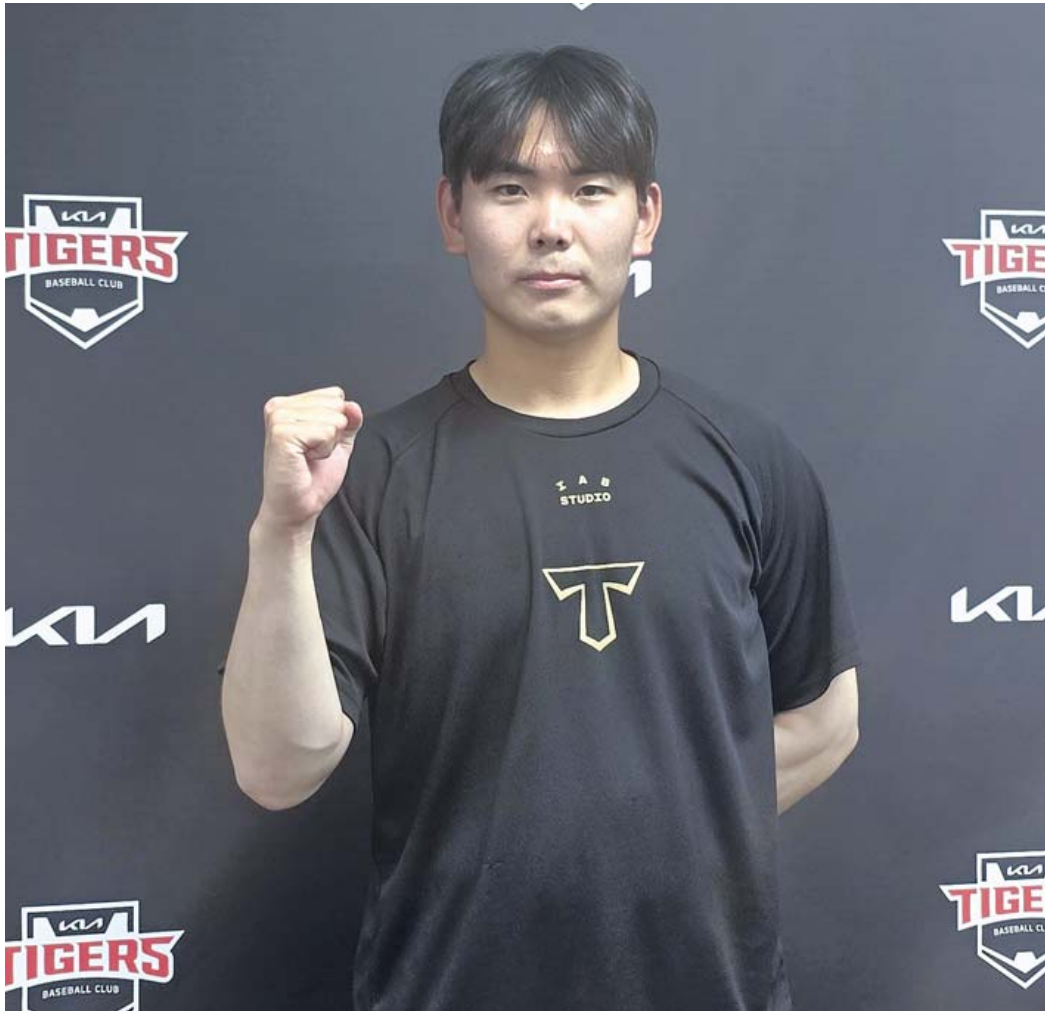
위기서 더 빛난 투혼, 새로운 희망으로 “내년엔 더 높은 곳에서”
조상우·전상현에게 배운 볼펜 루틴, 한층 단단해진 성장 곡선
“나만의 장점으로 담대한 도전 준비, 더 믿음주는 선수 되고 싶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기대에 못 미친 채 리그 8위로 마감했다. 하지만 힘든 흐름 속에서 ‘육석’의 등장은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그 가운데 볼펜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이름, 성영탁(21)이 있었다. 그는 올 시즌 45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점(ERA) 1.55, 3승 2패 7홀드, 피안타율 0.209, WHIP 0.97을 기록했다. 198명의 타자를 상대로 52%이닝을 던졌다. 30개의 삼진을 잡는 동안 피홈런은 단 두 개뿐이었다.

위기에서도 자신 있게 공을 던지는 담력. 그게 루키 성영탁의 가장 큰 무기였다. 신인으로선 보기 드문 안정감이 있었다. 팀이 무너질 때도, 그의 손끝은 단단했다. 지난 24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난 그는 첫 시즌을 마친 소감을 차분히 풀어놓았다. “데뷔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뻐요.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했어요. 부상 없이 시즌을 마무리한 게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한 시즌을 견뎌낸 신인의 무게가 묻어 있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을 묻자 망설이지 않았다. “(5월20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치른 프로 데뷔전이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경기에서 나갈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바뀌었다. 2이닝을 퍼펙트로 막았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데뷔전의 긴장감, 그리고 첫 퍼펙트 이닝의 짜릿함이 아직도 생생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도 곱씹었다. “몇몇 경기의 득점권 상황에서 과감히 던지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승부조절을 더 단단히 하고, 결정구 미나샷(슬라이더) 완성도를 높이는 게 과제입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는 말투에서 젊은 투수의 성숙함이 엿보였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침착함의 비결을 묻자, 그는 담담히 말을 이었다. “특별한 루틴은 없다. 고등학교 때 결승전을 던지면서 긴장감을 먼저 느껴봤습니다. 중요한 상황에서 ‘막으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던졌다” 신인의 말치고는 놀라운 만큼 담백했다. 팬들이 ‘루키답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했다.



KIA타이거즈 성영탁이 지난 24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인터뷰를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홍철 기자

“그렇게 봐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노련해 보인다는 말은 그만큼 많이 배웠다는 뜻이니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선배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조상우 선배와 전상현 형에게서 볼펜 루틴을 많이 배웠다. 언제 몸을 풀어야 하는지, 어떤 느낌으로 던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 올해 성영탁은 신인상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

리며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모았다. “그런 후보에 오른다고는 생각도 못했어. 대표팀에도 뽑히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자체가 영광이다. 신인상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 말끝에는 웃음이 섞였지만, 그 안에 한 해를 온전히 버텨낸 자신감이 있었다. 시즌 막판 대표팀 발탁 소식을 들었을 때의 순간도 생생했다. “처음에 ‘내가 간다고?’ 얼떨떨했다. 그래도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 몸을 잘 만들어서 평소 하던 투구 그대로 보여주자고 다짐했다.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한 시즌을 돌아본 그는 내년 목표를 분명히 말했다. “무엇보다 부상 없이 완주하고 싶다. 더 노련한 투구로 마운드에서 믿음을 주는 선수가 되겠다” 야구장에서 벗어나면 또래답게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집에서 형들이랑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자주 한다. 그게 제일 좋은 휴식”이라며 웃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다. “팀 순위는 아쉽지만, 시즌 내내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엔 더 높은 곳에서 야구할 수 있게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친 성영탁. 그가 남긴 1.55의 평균자책점보다 더 인상적인 건, 한결 같은 집중력이었다. 내년엔 그 투자가 한층 높아타오르길 팬들은 기대하고 있다. /주홍철 기자

광주 출신 이정환,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

최종일 5연속 버디로 역전 우승...제네시스스코티시 오픈 티켓 획득

이정환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와 DP 월드투어가 공동 주관한 제네시스 챔피언십(총상금 400만달러)에서 우승했다. 송원고를 졸업한 이정환은 26일 충남 천안의 우정힐스CC(파71·7천36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1개로 7언더파 6타를 쳤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7타를 기록한 이정환은 공동 2위 나초 엘비라(스페인)와 로리 캔터(잉글랜드)를 3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2017년과 2018년에 KPGA 투어 1승씩 따낸 이정환은 약 7년 만에 투어 3승을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68만달러(약 9억7천만원)다. 이정환은 이번 우승으로 대회를 공동 주관한 DP 월드투어 2년 출전권과 부상으로 제네시스 GV80 차량을 함께 받았다. 이정환은 2018년 11월 골프존·DYB교육 투어 챔피언십 우승 이후 KPGA 투어에서 준우승만 6번 하다가 7년 만에 우승 갈증을 해소했다. 올해도 그는 GS칼텍스 매경오픈과 군산CC

오픈에서 두 차례 준우승했다. 한국 국적 선수가 DP 월드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지난해 이 대회 안병훈 이후 올해 이정환이 1년 만이다. 역대 DP 월드투어 한국 선수 우승은 최경주, 양용은, 노승열, 정연진, 안병훈, 이수민, 왕정훈에 이어 이정환이 8번째다. 이정환은 이번 대회 2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였다가 3라운드에서 2타를 잃고 공동 12위로 내려갔으나 마지막 날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 이정환은 3번 홀(파4)부터 7번 홀(파3)까지 5개 홀 연속 버디로 타수를 줄였고, 엘비라와 공동 선두였던 18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냈다. 1타 앞선 상황에서 먼저 경기를 끝낸 이정환은 2위로 추격하던 엘비라가 17번과 18번 홀에서 연속 보기를 하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한국 선수로는 송민혁, 최승빈이 6언더파 28타, 공동 7위에 올랐다. 2025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우승 트로피를 든 이정환 <KPGA 제공>

스 스코틀랜드오픈 출전권은 이정환과 최승빈에게 돌아갔다. 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김시우는 4언더파 28타로 공동 21위, 임성재는 1언더파 28타로 공동 42위로 대회를 끝냈다. /연합뉴스

리슈잉, 중국적 선수 최초 KLPGA 제패

광남일보·해피니스오픈 초대 챔프

리슈잉(중국)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A) 투어 광남일보·해피니스오픈(총상금 10억원)에서 우승했다. 리슈잉은 26일 나주시 해피니스CC(파72·6천72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8타를 기록한 리슈잉은 공동 2위 선수들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리슈잉은 2015년 9월 한화금융 클래식에서 우승한 노무라 하루(일본) 이후 10년 만에 KLPGA 정규 투어 대회를 제패한 외국인 선수가 됐다. 중국 선수의 KLPGA 정규 투어 대회 우승은 리슈잉이 사상 최초다.



한복을 입고 우승 트로피를 든 리슈잉 <KLPGA 제공>

이번 대회 2라운드까지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8위였던 리슈잉은 이날 공동 2위에 1타 앞서 있던 17번 홀(파5) 버디로 2타 차로 달아나며 승기를 굳혔다. 14번 홀(파4) 그린 주위 약 15m 거리에



지난 25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제18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송정동초 선수단이 우승기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송정동초, KIA 타이거즈기 우승

송정동초 이용찬 대회 MVP

송정동초등학교가 제18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송정동초는 지난 25일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순천북초를 10대6으로 꺾고 2003년 초대 우승이후 22년 만에 우승기를 들어 올렸다. 이번 대회는 호남 지역 야구 꿈나무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총 14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승팀 송정동초에게는 우승기와 더불어 우승 트로피, 상장, 야구공 3백스와 300만 원 상당의 야구 용품 구입 쿠폰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준우승 순천북초에는 트로피와 상장, 야구공 1백스와 100만 원 상당의 야구 용품 구입 쿠폰이, 3위 서석초와 순천남초에게 트로피와 상장이 각각 주어졌다. 참가팀에게는 야구용품이 기념품으로 주어졌다.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송정동초 이용찬은 트로피와 상장을 받았다. /주홍철 기자

광주시체육회,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 호평

북구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찾아
학생·학부모·주민 함께 작은 운동회



지난 25일 북구가족센터에서 진행된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곡초에 방문해 학생들과 교류한 바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스포츠도 복지인 만큼 시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웃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종 기자

광주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 공모로 선정된 ‘2025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 사업을 실시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5일 오후 3시 북구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센터 소속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를 운영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대한체육회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스포츠 버스 체험, 작은 운동회 등 학생들에게 새로운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체험형 사업이다.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VR 및 Wii 스포츠 체험존에서 펜싱, 양궁 등 다양한 종목의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볼볼공 던지기, 고무마 릴레이 등 작은 운동회도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스포츠버스가 광주 임